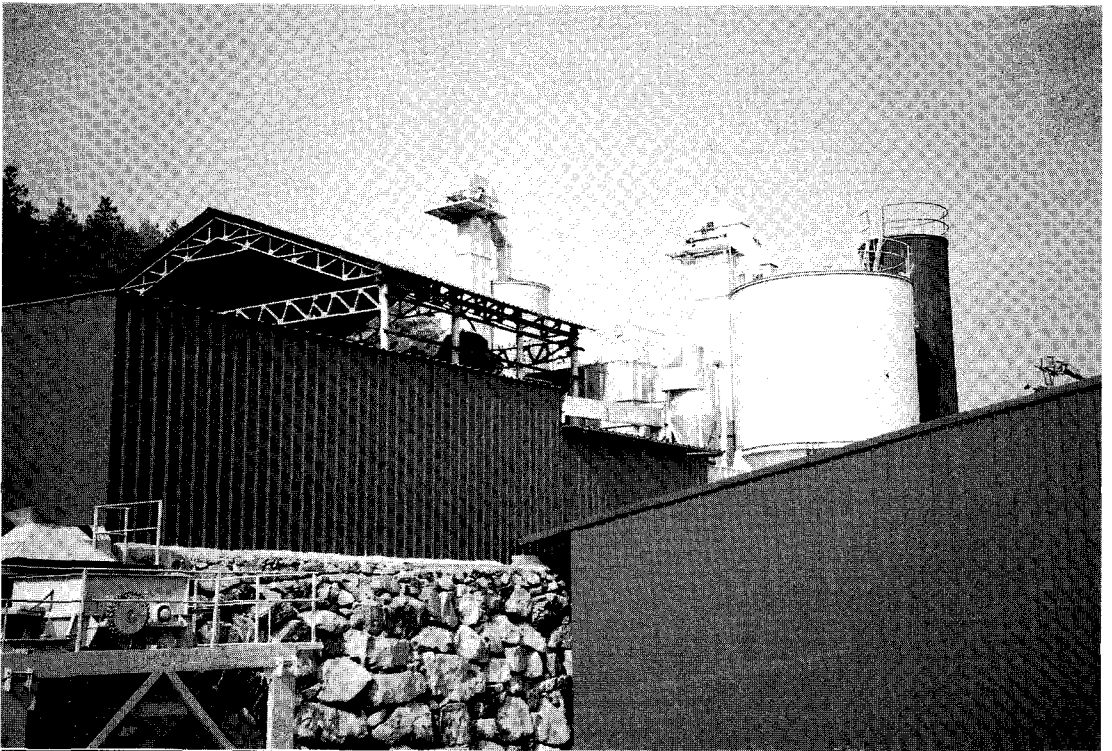


연 · 파란을 2% 이상 낮춘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에 위치한 지산산업은 굴껍질을 분쇄하여 만든 패분사료 “미라셀”을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 산란농가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굴 껍질 난각 강화제 국산화 성공

우리나라 남해안의 통영, 거제, 남해, 하동, 고성, 여수, 순천 지역은 굴 양식업이 발달되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굴의 75%는 통영에서 가공되고 있다. 통영에서 나오는 굴껍질은 대략 연 30만톤, 이중 10만톤은 종패 껍질로 사용되고 나머지 20만톤은 쓰레기로 버려져야 한다. 그러나 지산산업이 굴껍질을 사료와 비료로 만들면서 굴 껍질 쓰레기 처리 고민은 사라지게 되었다.

지산산업 조득현 이사가 98년 패화석 비료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굴껍질로 난각강화제를 만드는 것을 보고 동사 양현석 사장에게 국산 굴껍질 사료를 만들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당시양사장은 석회석 비료 생산에만 의존하였고 경영여건 또한 악화되어 새로운 사업 전환이 절실하였다.

일본의 패각분 업체 현황을 살펴보아도 사업 잠재력도 충분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굴껍질의 60%를 난각강화제로 가공되고, 40%는 경종농업 비료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굴껍질보다 꼬막을 난각 강화제로 이용하거나 몇몇 대군농장들이 네덜란드, 중국에서 수입산 패각분을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양사장이 국내 굴 껍질 사료가 외국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몇 년의 연구 끝에 2001년 외국산에 버금가는 국산사료 첨가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막상 국산 패각분으로 사료첨가제를 만들었지만 사료업체에 판매와 제품 기술지원이 절실했다. 그래서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조득현이사는 이미 첨가제 시장에서 알려진 천안의 K사와 기술제휴를 하게 되었다.

굴껍질의 성분분석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에 의뢰한 결과 칼슘의 공급뿐만 아니라 각종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가금의 정상적인 생리 및 신진대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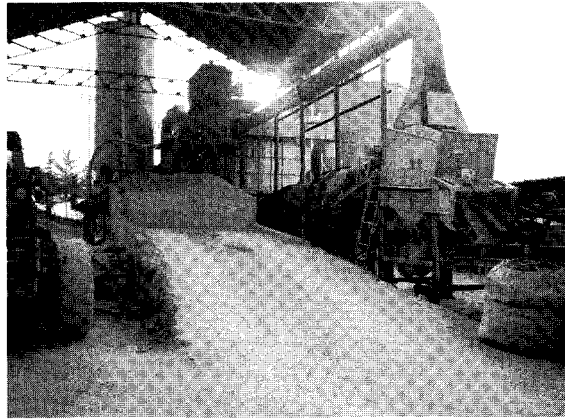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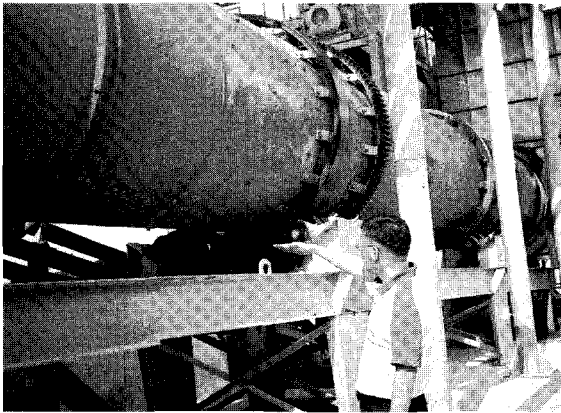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K사와 지산산업이 논의 끝에 굴껍질로 사료첨가제를 만든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뜻의 미라클의 미라, 또는 경상도 말로 “미기라(떡이러)”의 미라와 껍질이라는 영문자 sell를 합쳐 “미라셀”이라고 제품명을 확정하였다.

살모넬라, 대장균 완전 제거 안전성 자부

미라셀의 제품생산은 원료 수집에서 1, 2차 건조, 1, 2차 분쇄, 선별, 유기산 처리, 포장, 출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정을 거치게 된다.

조득현 이사에 의하면 엄격한 선별 시스템을 적용하여 엄선된 최상질의 국산패각만을 사용하여,

▶ 미라셀 제조 공정



1. 패각 수집 ⇨ 2. 건조 ⇨ 3. 분쇄 ⇨ 4. 소성 ⇨ 5. 선별 ⇨ 6. 포장 ⇨ 7. 선별작업 ⇨ 8. 유기산처리 ⇨ 9. 포장 및 출고



“

지산산업 양현석 사장은 국산 패각(굴껍질)을 사료 첨가제 미라셀을 개발하여 국내 우수 산란농가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양현석 사장은 76년 양돈업을 시작으로 10년간 사료회사 재직 경력이 있고 95년부터 석회석 비료 사업 시작하다가 2001년부터 굴껍질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미라셀을 산란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

580℃ 이상의 고온에서 4분간 건조함으로써 수분의 제거뿐만 아니라 대장균, 살모넬라균, 일반 병원균을 제거하여 제품의 안전성이 뛰어나며, 분쇄 과정에서 다년간의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력으로 미분(가루) 발생이 적어 일정하고 균일한 입자 제품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료 효율 향상 농가 이익 증가

미라셀은 보통 산란농가에서 난각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데 특히 난각이 얇아져 파란의 비율이 증가하거나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칼슘 섭취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 산란노계의 칼슘 섭취 능력이 떨어지거나 계사 환경이 열악한 경우 첨가해 주면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미라셀 첨가비율은 30~40주령 계군은 0.7~1%, 40~50주령 계군은 1~1.5%, 50주령이상 2%이다.

현재 미라셀을 구입하는 농가들은 10만수 이상 대군 농장들이 대부분 사용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소규모 농가 사용실적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중소규모 농가들은 닭의 신진대사에는 미라셀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방해석(돌가루)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양현석 사장은 지산산업의 사료 첨가제 판매량이 월 700톤까지 증가하면 현재 공급가격은 1/2까지 하락할 수 있고, 수입 패각분의 1/3 수준에 공급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양계 농가가 미라셀을 사용함으로써 고가의 사료 섭취량을 줄이고, 닭의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방해석 사용시보다 연란과 파란 발생률이 2%이상 낮아지는 등 계란 품질도 좋아져 산란농가 이익이 배가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양계**

취재 | 김중준 과장 (jjun@poultry.or.kr)